

事를 完了하였으나 環境整理工事인 窟左右便과 飲料水場附近의 自然石築(44-23-16)과 主階段은 前室基壇에 三段의 階段을 합하여 四十八段으로 하였다(106-256) 飲水場設置와 上水道 등을 設置되었고(155-185) 植樹(146-296)를 하였다. 이 環境整理를 위하여 崔淳雨 設計委員의 現場指示가 있었다. 主飲水場의 水槽는 月城郡守舍宅의 琴鶴軒水槽를 搬出(166) 設置하였다. 窟의 封土는 自然地勢에 따라 築造하였다. 寮舍는 壽光殿 東便인 建物發掘址에 三間매집을 新築하였으며(254-236) 窟內諸彫刻의 破片으로서 發掘된 遺品들을 彫刻家 申尙均氏의 手苦로 復元되었다. 窟內의 溫度調節孔을 設置키 위하여 十一面觀音像腰石下와 二重窟間에 貫通孔을 마련하였다(174-75) 其他 三層石塔을 解體復元하였으며(266-276) 申氏의 손으로 佛像洗滌作業을 하였다(286) 이로써 工事着工後滿一年만에 各工程이 完了되었으며 七月一日文化財委員會 委員長以下多數委員 文教部長官以下關係官 參席下에 佛式으로 竣工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第五卷 第八號 通卷四十九號

在日金銅佛像三軀

黃 壽 永

一九六一年 十二月 中旬 日本 東京에서의 일이다. 韓日會談에 參加하고 있던 어느날 駐日代表部 庶務課에서 우연히 小罐에 들은 佛像 三軀를 注目하고 그 由來를 물은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課長 바뀔 때마다 引繼되어 오는 것인데 아마도 柳泰夏氏 당시부터 전하여 오는 듯 하나 證憑書類가 없어 無主物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同月 十八日 李公使에 提示하는 동시에 處理方案을 의논한 바 있었다. 이 佛像들은 모두 金銅像으로서 三國과 新羅統一期의 佳作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바이다.

(1) 金銅如來立像(寫眞左) 上下로 別鑄된 單蓮七瓣의 仰伏蓮座(下臺 七稜으로 眼象刻) 위에 兩足이 挿入된 直立正面의 如來像이다. 肉髻素髮이 豐滿한 相好를 보이며 通肩大衣에는 衣紋이 線刻되었고 左右手는 身側으로 약간 틀어서 反掌하였다. 後面 또한 扁平하며 左右身側으로

輪廓曲面이 있을

은 背面이 없고 中

央에 光背를 위한

突起 하나가 남아

있을 뿐이다. 全

高 十八·五cm로

서 鑲金 良好八

九世紀作으로 推

定(身幅 四·五cm

身高 一二·五cm)

(2) 金銅誕生佛(寫眞

中央) 赤色鑲金

을 보이는 小像으

로서 臺座로는 동

근 足座만이 남아

있다. 身部保存은

完全한데 곳곳에

綠銹가 보인다. 長

軀의 身部는 直立하여 右手를 들었고 左手는 垂下하여 身部에 密着

시키고 있다. 上裸이며 腰部以下の 裳衣는 前後同式의 衣褶文을 새겼

다. 頭頂의 肉髻는 크고 相好는 長方形으로 杏實形眼 仰月形口唇 등 古

式을 보이고 있다. 三國末六、七世紀의 作으로 推定된다. 全高 十三

cm 身高 一〇·七cm의 全鑄像。

(3) 脇侍形 立像(寫眞右) 三軀 중 가장 작은 金銅像으로서 鍍金이 完全

하다 臺座는 없으나 足裏에 方孔殘存. 頭部만이 약간 前傾하였는데 頭

髮은 條線으로 되어서 頭頂에서 둥글게 말려올라가 異形을 보이고 있

으며 눈은 길고 코는 平坦 입은 兩端이 짝이 파지고 작다. 相好의 側

面이 크고 前面은 方形에 가깝다. 身部는 厚衣에 덮여 있는 바 通式의

大衣가 아니고 古式을 보이는 上下衣로 區別되었으며 上衣는 左衽으

로 되어 있다.



로 兩手を 따라 垂下하면서 三角形을 이룬 後面으로 물려서 그 下端에서 꼬리와 같이 突出되고 있다. 下衣는 平行縱線의 衣紋이 새겨졌을 뿐이며 右手는 들어 五指를 뒤엎고 左手에는 長方筒器를 받들고 있다. 兩足은 함께 모았는데 下端에는 四紋 履形이 새겨져 있다. 垂直을 이룬 身部左側線에서 보아 元來 脇侍像인 듯 한데 彫法과 作風에서 中國 北朝系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年代는 六世紀頃으로 推定되는 바 全鑄像으로서 彫法은 素朴強直하다. 全高 八·五cm.

以上 三像中 (1)은 臺座具存의 立像으로 國內外에서 類品을 볼 수 있으나 (2) (3) 특히 (3)은 매우 稀貴한 遺例로 보인다. 以上 三品은 아직 代表部에 保管中인데 國立博物館에 收藏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 一九六四年 四月 日本東京에서 서울朴某氏에게 이 佛像을 向讓한 바 柳氏의 모략으로 紙上에 報道된 바 있으나 全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며 그 以上의 言及을 拒否하였다.

一九五〇年 三月 金浦空港에서 金佛像密送事件이 있어서 그때 押收된 金銅菩薩立像 一軀(三國推定)는 현재 國立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바 이들이 그 事件과 有關한 것인지 또한 알 수가 없다.  
(一九五〇、三、九 東亞日報)

## 英陽 新邱洞 三層石塔

秦弘燮

英陽郡 立巖面 新邱一洞에 조그마한 三層石塔이 있다. 一重基壇 위의 三層石塔으로 第三層塔身, 上基壇 面石 一枚와 相輪部의 大部分을 喪失하였을뿐 다른 部分은 完形을 維持하고 있다. 原來 壇상이 甕돌이 塔全體를 덮고 있던 것을 除去하여 原形을 露出시켰다.

下基壇은 大部分 埋沒되었으나 面石에는 柱形이 없고 眼象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甲石은 三枚로서 構成하고 있다. 上基壇은 隅柱形이

있는 面石이 各面一枚씩으로 構成하였고. 一枚로 된 甲石上面은 緩慢한 傾斜를 이루었는데 塔身을 받기爲하여 三段의 받침이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身蓋 모두 一石으로 되어 있는데 屋身에는 各其 隅柱形이 있고 屋蓋石은 받침이 各層



四段이며 처마끝은 直線이고 轉角이 若干 들리는 新羅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三層屋身은 喪失되었는데 現在는 露盤을 끼어서 代置하고 있다. 相輪部는 前記 露盤과 頂上에 있는 覆鉢만이 남았을뿐 全失되었다.

이 탑은 全體高(現高)二·五m 程度の 小塔이지만 各部의 均衡이 아름다운 美麗한 塔이다. 全面에 風化를 입었고 基壇部는 完全하지 못하지만 新羅下代의 佳作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탑은 上基壇 面石 一枚가 없어져서 마치 龕室과 같이 보이는 데 그 안에 石佛坐像 一軀를 安置하고 있다. 頭部가 切斷된 外에 全身磨損되었고 膝部前面이 破損되었으므로 그 위에 胡粉을 塗裝하였던 것이다. 本塔과는 關係가 없을 것이나 附近에서 發見된 것으로 보여진다. 本像의 年代도 塔과 거의 同代로 보여진다.

끝으로 古蹟調査資料에 立岩面 新邱洞에 三層石塔이 記錄되어 있는데 그 說明에 「塔身에는 四面 共 佛像이 浮刻되었다」라고 있으나 本塔에는 그러한 彫刻이 보이지 않으니 新邱洞에 이 以外에 다른 塔이 있었는지 또는 誤記인지 알 수 없다. 現在 新邱洞에서 이 以外에 다른 塔을 찾지 못했다. 이 資料에 記錄된 바에 依하면 높이 七尺、 基壇 直徑 三尺